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대외 업무부(202) 418-5080
3 라파엘 센터
1155 21st Street, NW
워싱턴, 디씨 20581
www.cftc.gov

공식 발표: 5666-09
발표 예정일: June 9, 2009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FTC)가 캘리포니아 소재 SNC 자산 관리 회사, SNC 투자 회사, 최고 경영 책임자인 피터 C. 손과 최고 재무 책임자인 진 K. 정을 상대로 8 천 5 백만불 외환 거래 폰지 피라미드 사기 조작에 대해 고소하다.

피고인들은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지역사회를 겨냥했다.

워싱턴, 디씨-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FTC) 는 오늘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연방 법원에 SNC 자산 관리 회사(SNC 자산)와 SNC 투자 회사 (SNC 투자)- 이 두 회사 다 캘리포니아주 플래센트에 소재하며 (합쳐서 SNC 라 함) - 최고 경영 책임자인 피터 C. 손과 최고 재무 책임자인 진 K. 정을, 약 500 의 고객들을 상대로 8 천 5 백만불 외환 거래(forex) 폰지 피라미드 사기조작을 운영한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자산을 동결하고 피고인들의 서류를 보관하는 긴급금지명령을 하였고, 6 월 22 일에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FTC)의 예비적 금지명령신청에 대해 법정증언 청문회를 열기로 하였다.

오늘 제출된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FTC)의 소장은, 피고인들이 고객들의 자금을 횡령하여 다른고객들한테 지불하는데 썼고, 개인비용과 사업비용으로 썼음을 고소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자신의 횡령과 거래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사기 권유와 거짓 서류를 발행한 혐의로도 기소되었다. 법원에 주장되었듯이, 피고인들은 갑자기 사업운행을 중단하고, 손과 정은 사라졌다.

현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FTC)의 시행부서의 디렉터 스티븐 J. 오비씨는, “이것은 가까운 관계에 있는 공통 목적을 가진 그룹들을 겨냥한 사기성 투자계획의 교활한 성질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입니다. 개인적 관계를 토대로, 사람들은 피담홀려 번 돈을 투자라는 명목하에 내놓도록 속임을 당했고, 자신들이 대규모의 외환 거래(forex) 사기조작의 희생양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엔 이미 시기가 너무 늦었지요.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FTC)는 이런 조작극이 발견되는 즉시 빨리 조치를 취해 사기계획을 막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지키며, 사기꾼들을 법에 의해 처벌하려하고 있습니다.” 고 말했다.

주장한 바에 따르면, 적어도 2000 년부터, 피고인들인 손과 정이 거주하고 있던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의 한인 커뮤니티에서 피고인들은 사기로 투자멤버를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성공한 외환거래인들이라 속이고, 연간 50%의 수익기록을 선전을 하고 다니며 2-3%의 월수익을 보장하였다. 권유홍보자료에는 SNC 가 이 산업분야에서 뛰어난 외환거래회사라고 자랑했다.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매달 피고인들은 그들이 약속하였던 꾸준한 수익을 보여주는 계좌보고서를 제공하였고, 새로운 자금을 계속해서 요청하였다. 가장 최근의

미디어 연락처
로버트 홀리필드
(202) 418-5080
데니스 홀든
(202) 418-5088
대외 업무부

관련 서류
소장

마지막으로 운영된 해에는, 피고인들은 약 2 천 2 백만불의 새로운 자금을 받아들였고, 문을 닫기 바로 직전까지도 수백만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고객들을 위하여 적은 양의 거래밖에 관여하지 않아보였고, 그들이 실제로 거래한 양조차도 이익은 없었다. 그대신, 피고인들은 자금을 횡령하여 그 돈을 고객들의 수익과 원금을 지불하는데 썼고, 손의 고가주택의 모기지 지불 등을 포함한 자신들의 개인비용 지불에 썼으며,구제 피고인에게 돈을 쏟아부었고, SNC 투자자금의 자본규제를 맞추는데 사용했다.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FTC)의 소장은 또한 CFTC 에 등록된 선물 중개회사인 SNC 투자회사를 상대로, 최저순익자본 규제위반과 자신들의 자본미달통지를 보류한 혐의로 고소한다.

구제피고인 앤 리, 피터 손의 부인이 지명됨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FTC)소장은 앤 리를 구제피고인으로 지명한다. 그 이유는 그녀가 SNC 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임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앤 리는 손의 부인이다.

계속 진행되는 위원회의 소송을 통하여,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FTC)는 손해배상, 부정이익배상, 민사벌금과 더 나아가 앞으로 연방상품법 위반과 더 이상 거래를 못하게 하는 영구금지명령을 법원에 요청한다.

어제, 손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 소재한 연방법원에 연방범죄혐의로 출두했다. 미국 증권과 거래위원회는 오늘 별개의 소송에서 피고인들을 상대로 고소했다.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FTC)의 시행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연방 수사국, 북가주 지역 연방검찰청,미국 선물 협회, 덴마크 금융 감독 당국(Finanstilsynet)과 스웨덴 금융 감독 당국(Finansinspektionen)의 도움을 감사드린다.

이 케이스는 다음의 시행부 직원들의 책임하에 있다: 그레첸 L. 로우, 루크 마쉬, 토에 올라린테, 케라 무차와 미셸 부가스.